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말산업 육성법 고찰을 통한  
말고기 시장 활성화 방안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馬 産 業 學 科

吳 유나

2018 年 2 月

# A Study on the Method to Activate Horse Meat Market by Considering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Yu-na, Oh

(Supervised by Professor Youn-Chul, Ryu)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natural sciences

2017.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Horse Industry  
GRADUATE SCHOOL INDUSTRY  
JEJU NATIONAL UNIVERSITY

# 말산업 육성법 고찰을 통한 말고기 시장 활성화 방안

指導教授 류 연 철

吳 유 나

이 論文을 理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 年 12 月

吳유나의 理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정 동 기 ㉠

委 員 도 경 탁 ㉠

委 員 류 연 철 ㉠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2017 年 12 月

## 목 차

표 차례	III
그림 차례	IV
국문요지	V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
1) 말산업 육성법 제정	3
2)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4
3) 말산업 특구 지정	4
4) 선행연구 검토	7
3.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9
II. 말고기 시장의 현황 파악	10
1.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 검토	10
2. 말 도축 실적 검토	13
3. 비육마 생산과정 및 유통체계 검토	15
4. 말고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7
III.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파악	18
1.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검토	18

2. 말산업 특구의 말산업 육성 정책 검토.....	22
1)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 육성 정책.....	22
2) 경상북도(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의 말산업 육성 정책.....	25
3) 경기도(용인·화성·이천)의 말산업 육성 정책.....	27
3.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9
IV. 문제점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30
1. 말산업 특구(제주·경북·경기) 간의 말고기 유통망 구축.....	30
2. 말고기 품질 개선을 위한 등급·부위별 단가 책정.....	32
V. 결론.....	33
참고문헌.....	35
ABSTRACT.....	38

## 표 차례

<표 1>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신·구 조문 대비표	5
<표 2>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 요약(2013 ~ 2016년)	11
<표 3> 용도별 말 사육두수 현황(2013 ~ 2016년)	12
<표 4> 지역별 말 사육두수 현황(2013 ~ 2016년)	12
<표 5> 지역별 육용마 사육두수 현황(2014 ~ 2016년)	13
<표 6> 말 도축 실적(2007 ~ 2016년)	14
<표 7> 지역별 말 도축 실적(2007 ~ 2016년)	15
<표 8>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달성목표	18
<표 9> 말고기 생산·유통·소비기반 조성 계획	20
<표 10>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달성여부	21
<표 11>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육산업 분야 육성 계획	23
<표 12>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육산업 추진상황(2012 ~ 2016년)	24
<표 13> 말고기 유통망 확대를 위한 유통비 지원 사업계획서(안)	31

## 그림 차례

<그림 1> 제주도내 비육마 생산 및 말고기 유통체계 모식도.....	16
<그림 2>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추진과제.....	19
<그림 3> 경북 호스월드외의 말산업 육성 계획 조형도.....	25
<그림 4> 경기 호스랜드외의 말산업 육성 계획 조형도.....	28

## 국 문 요 지

본 논문의 목적은 말산업 육성법 고찰을 통해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의 말산업은 경마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산업으로 대두되면서 2011년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이 후 2012년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2014년 제주도에 이어 2015년 경상북도와 경기도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말산업은 경마산업 외에 승마의 대중화 및 말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가축에서 각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기존 축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대체제를 찾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말고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말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을 통해 말산업 육성법을 토대로 지정된 말산업 특구에서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택하였다. 선행연구와 말산업 육성법,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각 특구의 말산업 육성 정책,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주된 자료로 사용하였다.

말고기 시장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아직까지 말고기 시장이 말산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말고기의 생산과 소비가 제주도에 한정되어 있으며, 말 비육에 대한 체계 구축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제주에서도 말 도체 등급판정 시범사업의 중단, 비육 전용마 도입 효과의 미비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며,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 말산업 특구(제주·경북·경기) 간의 말고기 유통망 구축 방안과 말고기 품질 개선을 위한 등급·부위별 단가 책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말산업은 경마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최근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산업으로 대두되면서 단일 축종의 산업발전을 위한 유일한 법령인 말산업 육성법<sup>1)</sup>이 2011년 3월 9일에 공포되었고, 동년 9월 10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말산업 육성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2년 7월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sup>2)</sup>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말산업 기반 조성, 말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말 수요 확충 및 연관 산업 육성, 말산업 지속 발전기반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말산업 육성법 제20조(말산업 특구의 지정)에 따라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특구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실정이어서 결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을 2014년 8월 27일 개정·공포하여 그 이듬해인 2015년에 제2호 경상북도 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 지역과 제3호 경기도 용인·화성·이천 지역이 말산업 특구로 추가 지정되었다.

말산업 육성법 제6조(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매년 말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조사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27,116두의 말이 사육되고 있으며 이중 육용마는 887두(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육용마를 사육하고 있는 곳은 제주, 강원, 전남지역이며 전체 육용마의 98.1%인 870두가 제주에서 사육되고 있다. 말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수는 16,662명으로 나

1) 법제처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말산업 육성법.

2)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보도자료<농식품부,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 2012.7.16.

타났으며, 이중 말고기 시장에 관련하여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말 도축업, 말고기 음식점)의 수는 294명(약 2%)을 차지하였다.<sup>3)</sup>

전 세계적으로 웰빙 식품이 각광을 받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사람들은 한 끼의 식사를 하더라도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2003년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sup>4)</sup> 발생 후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 재개되면서 발생한 광우병(MCD ; Mad Cow Disease) 파동, 2010년에서 2011년까지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되며 350만 마리의 우체류 가축을 살처분하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3조원에 달하였던 구제역(FMD ; Foot-and-Mouth Disease)<sup>5)</sup>, 2014년부터 2017년 여름까지 매년 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sup>6)</sup> 등 최근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가축인 소, 돼지, 닭 등에서 각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기존의 축산물에 대해 불안감을 토로하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대체재를 찾고 있으며,(김소현, 2016; 김영규, 2012; 이유진, 2011) 김문영(2011)은 기존 축산업의 대체 산업으로써 말산업 육성의 타당성 여부를 고찰하면서 말고기 산업의 발전이 기존의 축산업을 더욱 안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말고기는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영양가가 높아 새로운 대체제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국내 말고기 소비량은 174t으로 국민 1인당 3.5g에 해당하며 이는 일본의 66g에 비하면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농협중앙회, 2014). 그 이

---

3) 호스피아 [www.horsepia.com/](http://www.horsepia.com/) 2016 말산업 통계.

4)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http://www.qia.go.kr/)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으로 긴 잠복기와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결국은 100% 폐사된다. 국내에서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음.

5)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http://www.qia.go.kr/)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체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하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 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 가축전염병에 속함.

6)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http://www.qia.go.kr/)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남.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중 고병원성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음.

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말고기가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축산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고기의 섭취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윤숙(2009)은 육지부에서 군마나 역마로서 말의 기능이 중시되면서 말에 대한 신성 관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말고기 식용이 억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말은 먹는 것이 아니라 타는 것 이라는 생각이 일반화 되어있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 하지만 최근 말산업 육성법이 시행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말고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말고기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정진형 등, 2013; 박행철, 2015; 김도희 등, 2015)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말산업 육성법을 토대로 지정된 말산업 특구에서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마와 승마뿐만 아니라 말고기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말산업 육성법과 종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고,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 어떠한 말고기 시장 활성화 정책 펼치고 있는지 탐구하려는 것이 연구의 방법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말고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말산업 육성을 위해 말고기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말고기 시장 활성화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말산업 육성법의 제정

2000년대 중후반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말 산업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 등에서는 말산업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09년 1월 말산업본부 및 법제정 추진 전담부서가 신설되었고, 7월 말산업 육성법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으

며, 11월 말산업 육성법 발의안 확정 및 찬성의원 서명 추진 등의 과정을 통하여 12월 조진래 의원과 김우남 의원이 각각 말산업 육성법을 국회에 발의하게 된다. 그리고 2011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의원 19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고 말산업 육성법은 2011년 3월 9일 제정 및 동년 9월 10일 시행된다. 말산업 육성법은 법률 제10451호로 총 6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내용에는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말 등록 기관 지정 및 말산업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 자격 제도 도입,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운영 및 지원, 말산업 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말산업 육성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2012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종합계획의 내용 중 말산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에는 말산업 기반조성, 말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말수요 확충 및 연관 산업 육성, 말산업 지속 발전기반 구축이 포함된다. 이중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말수요 확충 및 연관 산업 육성 부분이 유일하다. 이 부분에는 말고기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말고기 생산·유통·소비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이 포함된다.

### 3) 말산업 특구의 지정

말산업 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지역단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2011년 말산업 육성법이 시행되고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특구지정 계획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sup>7)</sup>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말 사육두수의 67% 이상을 사육하고 있으며, 약 50여개의 승마시설

7)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보도자료<농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를 말산업특구로 지정> 2012.1.2.

과 전국 초지의 45%인 17천ha를 보유하는 등 말 생산·조련·이용 등에 필요한 유리한 자연 여건을 갖춘 곳으로 말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되고 있다.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승마시설, 거점조련시설, 인공수정센터, 전문 인력 양성 기관 및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 등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57억원이 지원되었다.

하지만 이후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실정이어서 결국 2014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신·구 조문 대비표<sup>8)</sup>

현 행	개 정 안
제3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제3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 -----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말산업특구의 요건) 법 제20조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말산업특구의 요건)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1.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일 것	1.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농가를 합한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가. 승마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p>2.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p> <p>3. 4. (생략)</p> <p>제11조(말산업특구의 지정등)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말산업특구의 지정 또는 면적 변경의 승인(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1. ~ 3. (생략)</p> <p>② ~ ⑤ (생략)</p>	<p>를」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승마장</p> <p>다.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p> <p>2. ----- 사육 또는 이용-----</p> <p>3. 4. (현행과 같음)</p> <p>제11조(말산업특구의 지정등) ① ----- ----- ----- ----- -----.</p> <p>1. 말산업 진흥계획서</p> <p>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된 후, 2015년 6월 경상북도 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 지역 및 경기도 용인·화성·이천 지역이 말산업 특구로 추가 지정<sup>9)</sup>되었다. 제2호로 지정된 경상북도 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 지역은 자체적인 말산업 육성 진흥사업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번식마를 도입 보급하는 한편 공공승마장과 같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말산업 활성화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었으며, 제3호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화성·이천 지역은 체험승마 등 승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울·인천 등 대도시와 인접하여 말산업 육성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었다. 제2, 제3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경상북도와 경기도에는 승마시설,

8)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보도자료<농식품부, 특구 지정요건 완화로 말산업 활성화 기대> 2014.8.31.

9)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2호·제3호 말산업특구 지정 !> 2015.6.21.

조련시설, 전문 인력 양성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이 2년에 걸쳐 지원되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7년까지 전국에 말산업 특구를 5개 내외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2017년 12월 현재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기도 총 3개소이다.

#### 4) 선행연구의 검토

말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었지만 주로 경마와 승마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말산업 육성법이 시행되고 말산업 특구가 지정되면서 자연스럽게 말고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말고기의 영양학적 가치, 생산 방식, 인식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문영(2011)은 기존 축산업의 대체 산업으로써 말산업의 타당성 여부를 고찰하면서 말고기 식용확대를 통한 말산업 육성을 강조하였다. 구제역이나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축인 말을 이용한 말산업의 육성이 우리나라 축산업의 안정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말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마, 승마 등의 레저 스포츠의 활용을 넘어 말고기의 식품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말고기의 식품화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말고기의 품질을 향상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분육별 거래 방식과 말 등급판정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민수 등(2014)은 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말고기 품질향상 및 인증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말고기 품질향상 및 비육기술과 말고기의 근육부위별 품질평가 및 검증시스템, 말도체 등급기준 보완 및 말고기 유통지표를 개발하였으며 말고기 등급판정제도가 정착되어, 말고기의 등급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면 비육마 생산농가에서는 고품질의 말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말고기의 품질이 향상되고, 소비자는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말고기를 섭취함으로써 말고기에 대한 만족도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김도희 등(2015)은 건강에 좋은 육류로 알려져 있는 백색육(오리고기, 닭고기)과

말고기의 식품학적 성분을 비교하여 말고기는 저지방 고단백 저콜레스테롤 육류이며, 오리고기와 닭고기보다 필수아미노산·다가불포화지방산·필수지방산·무기성분 중 Fe와 Zn의 함량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말고기가 닭고기나 오리고기보다 식품영양학적 가치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경상 등(2015)은 말고기 등급판정의 규정을 정립하고 말고기의 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선행 연구와 말고기 등급판정 시범 사업을 검토하여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말고기의 유통 거래시 경매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 방안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말고기의 가격을 결정하여 모두가 공평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말고기의 품질에 따른 거래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말고기 음식점에서 말고기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판매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 방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말고기의 등급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은 말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말고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말고기를 생산하여 말고기가 특별한 음식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말고기 등급판정제도의 법제화시 관련 법령인 축산법의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전성원 등(2015)은 말고기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지불의사를 추정한 결과 말고기에 대한 지불금액은 1kg 당 26,961원으로 한우 3등급 등심가격의 67.8%에 해당하며,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말고기 가격이 1kg 당 31천원~45천원임을 감안할 때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연령이 낮고 성별이 남자이며 말고기를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일수록 지불금액이 높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 수준으로 제품을 개발할 것인지 혹은 쇠고기 등 다른 육류와 차별화하는 전략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포지셔닝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행철(2016)은 고품질의 말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비육기간을 정립하기 위하여, 말의 비육기간·비육 전 용도·품종·성별에 따른 육질을 분석한 결과 비육되기 전 사용용도에 따라 보수력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등급판정에 있어 육량등급은 육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육질등급은 1+등급에서 보수력과 연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제주에서 생산되는 말의 특성상 근내

지방 침착이 어려워 1+ 출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고품질 말고기 생산을 위한 말 사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3.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인 말산업 육성을 위해 말고기 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정책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말산업 육성법이 2011년 시행되고, 현재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3개소에서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중에 아직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말고기 분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밑거름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말산업 육성법과 종합계획을 토대로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곳에서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와 말 도축 실적, 비육마 생산과정 및 유통체계 검토를 통해 말고기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 볼 것이다.

3장에서는 말산업 육성법과 종합계획 및 말산업 특구의 말고기 시장 활성화 정책 검토를 통해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 볼 것이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찾은 문제점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5장은 결론이다.

## II. 말고기 시장의 현황 파악

### 1.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 검토

말산업 육성법 제6조(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말사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2년 12월 말산업 실태 사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매년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지금부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sup>10)</sup>를 분석해보려 한다. 주요 주제를 가지고 요약하자면 <표 2>와 같다. 표를 살펴보면 모든 주제에서 매년 꾸준히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 사육두수는 2013년 24,467두에서 2016년 27,116두로 2,649두(10.8%)가 증가하였으며, 말산업 규모는 2013년 3조 1,399억원에서 2016년 3조 4,120억원으로 2,721억원(8.7%)이 증가하였다. 말산업 사업체 수는 2013년 1,824개소에서 2016년 2,278개소로 454개소(24.9%)가 증가하였으며, 말산업 종사자수는 2013년 15,411명에서 2016년 16,662로 1,251명(8.1%)이 증가하였다. 승마시설수는 2013년 331개소에서 2016년 479개소로 148개소(44.7%)가 증가하였으며, 정기승마인구수는 2013년 38,867명에서 2016년 47,471명으로 8,604명(22.1%)이 증가하였고, 체험승마인구수는 2013년 739,449명에서 2016년 890,951명으로 151,502명(20.5%)이 증가하였다.

10) 호스피아 [www.horsepia.com/](http://www.horsepia.com/) 말산업 통계, 2014~2016.

<표 2>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 요약(2013 ~ 2016년)<sup>11)</sup>

연도 주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말 사육두수/(두)	24,467	25,819	26,330	27,116
말산업 규모/(억원)	3조 1,399	3조 2,094	3조 2,303	3조 4,120
말산업 사업체수/(개소)	1,824	1,999	2,052	2,278
말산업 종사자수/(명)	15,411	16,091	15,845	16,662
승마시설수/(개소)	331	395	457	479
정기승마인구수/(명)	38,867	40,596	42,974	47,471
체험승마인구수/(명)	739,449	771,076	830,406	890,951

이번엔 <표 3>과 <표 4>를 통해 말 사육두수의 연도별 현황을 용도, 지역을 나눠 살펴보려 한다. <표 3>을 2016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승용마가 10,766두(전체의 40%)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은 경주마 7,732두(전체의 28.5%), 번식마 4,494두(전체의 16.6%)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육용마는 887두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표 3>을 2013년과 2016년도의 사육두수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경주마가 2013년 6,405두에서 2016년 7,732두로 1,327두(20.7%)가 증가하여 가장 많은 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승용 2013년 9,591두에서 2016년 10,766두로 1,175두(12.3%) 증가, 육용 2013년 629두에서 2016년 887두로 258두(41%) 증가, 번식용 2013년 4,334두에서 2016년 4,494두로 160두(3.7%) 증가, 교육용 2013년 169두에서 2016년 184두로 15두(8.9%) 증가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감소한 용도는 관상용으로 2013년 243두에서 2016년 175두로 68두(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의 기타에 포함된 용도의 말은 용도미정(방목 등), 시험용, 투마, 공연용, 관광마차용 등이며 용도미정(방목 등)이 대부분이다.

11) 호스피아 [www.horsepia.com/](http://www.horsepia.com/) 말산업 통계, 2014~2016.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표 3> 용도별 말 사육두수 현황(2013 ~ 2016년)<sup>12)</sup>

연도 용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승용/(두)	9,591	9,146	9,471	10,766
경주용/(두)	6,405	7,846	9,160	7,732
번식용/(두)	4,334	4,273	4,699	4,494
육용/(두)	629	903	852	887
교육용/(두)	169	195	211	184
관상용/(두)	243	207	207	175
기타/(두)	3,096	3,249	1,731	2,878

<표 4> 지역별 말 사육두수 현황(2013 ~ 2016년)<sup>13)</sup>

연도 지역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제주/(두)	14,135	14,776	15,081	15,261
경기/(두)	4,311	4,272	4,357	4,833
경북/(두)	1,212	1,280	1,310	1,252
부산/(두)	1,167	1,230	1,191	1,178
전북/(두)	811	970	1,075	1,110
전남/(두)	647	807	743	720
경남/(두)	536	590	695	731
충남/(두)	423	489	531	581

<표 4>의 지역별 말 사육두수를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이 2013년 말 사육두수에 비해 2016년 말 사육두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를 2016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주가 15,261두(전체의 59.5%)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은 경기 4,833두(전체의 18.8%), 경북 1,252두(전체의 4.9%)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 4>를 2013년과 2016년도의 사육두수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제주가 2013년 14,135두에서 2016년 15,261두로 1,126두(8%)가 증가하여 가장 많은 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 2013년 4,311두에서 2016년 4,833두로 522두(12.1%) 증가, 전북 2013년 811두에서 2016년 1,110두로 299두(36.9%)

12) 호스피아 [www.horsepia.com/](http://www.horsepia.com/) 말산업 통계, 2014~2016.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13) 호스피아 [www.horsepia.com/](http://www.horsepia.com/) 말산업 통계, 2014~2016.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증가, 경남 2013년 536두에서 2016년 731두로 195두(36.4%) 증가, 충남 2013년 423두에서 2016년 581두로 158두(37.4%) 증가, 전남 2013년 647두에서 2016년 720두(11.3%) 증가, 경북 2013년 1,212두에서 2016년 1,252두로 40두(12.1%) 증가, 부산 2013년 1,167두에서 2016년 1,178두로 11두(0.9%)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엔 <표 5>를 통해 지역별 육용마 사육두수 현황을 살펴보려 한다. <표 5>를 2016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주가 870두(전체의 98.1%)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은 강원 16두(전체의 1.8%), 전남 1두(전체의 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의 2014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육용마를 사육한 곳은 제주가 유일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육용마가 거의 사육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지역별 육용마 사육두수 현황(2014 ~ 2016년)<sup>14)</sup>

연도 지역별	2014년	2015년	2016년
제주/(두)	889	825	870
강원/(두)	-	20	16
전남/(두)	-	-	1
경북/(두)	-	4	-
충남/(두)	2	3	-
충북/(두)	1	-	-

## 2. 말 도축 실적 검토

현재 국내에서 말을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은 총 23개소이지만, 이중 말을 전문으로 하는 도축장이 없어서 주로 소를 도축하는 라인에서 말을 도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 축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14) 호스피아 [www.horsepia.com/](http://www.horsepia.com/) 말산업 통계, 2014~2016.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사용하기 위해 매월 전국의 소, 돼지, 말, 양, 닭의 도축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말 도축 실적<sup>15)</sup>을 분석하면 <표 6>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말 도축두수는 9,491두이고 평균적으로 1년에 약 949두의 말을 도축하였으며, 2014년 처음으로 도축두수가 1,000두를 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6년 도축 두수는 1,225두로 2007년 819두에 비하여 406두(49.6%)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 나타난 도축 두수는 도축장을 통해 도축된 두수로 비공식적인 도축(추렵)두수까지 포함하면 연간 1,500두 이상 도축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6> 말 도축 실적(2007 ~ 2016년)<sup>16)</sup>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도축 실적											
도축 실적/(두)	819	811	990	889	886	881	921	1,031	1,108	1,225	9,561

<표 6>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말 도축 실적을 <표 7>에 나타내보았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0두 이상 말을 도축한 곳은 제주, 경북, 경기, 전북, 충남 총 5곳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말을 도축한 곳은 제주 8,310두이며, 이는 전체의 86.9%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경북 617두(전체의 6.5%), 경기 218두(전체의 2.3%), 전북 177두(전체의 1.9%), 충남 130두(전체의 1.4%)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충북, 전남, 강원, 광주, 경남, 인천, 대전은 10년간의 총 도축 실적이 전체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007년 도축 실적과 2016년 도축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증가한 곳은 제주, 충남, 경기, 경북 총 4곳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두수가 증가한 곳은 2007년 687두에서 2016년 1,048두로 361두(52.5%) 증가한 제주이며, 그 다음은 충남 2007년 15두에서 2016년 42두로 27두(180%) 증가, 경기 2007년 9두에서 2016년 27두로 18두(200%) 증가, 경북 2007년 60두에서 2016년 75두로 15두(25%)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북은 2007년 48두에서 2016년 15두로 33

15)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http://www.qia.go.kr/) 말 도축실적, 2007~2016.

16)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http://www.qia.go.kr/) 말 도축실적, 2007~2016.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두(69%)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지역별 말 도축 실적(2007 ~ 2016년)<sup>17)</sup>

연도 지역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제주/(두)	687	690	883	781	777	779	805	887	973	1,048	8,310
경북/(두)	60	57	54	51	66	70	65	61	58	75	617
경기/(두)	9	35	20	19	14	11	22	39	22	27	218
전북/(두)	48	12	12	6	14	12	12	16	30	15	177
충남/(두)	15	9	4	5	3	4	10	22	16	42	130
충북/(두)	-	-	8	23	6	-	1	2	-	-	40
전남/(두)	-	7	3	2	3	5	5	3	2	8	38
강원/(두)	-	-	2	-	-	-	1	-	7	8	18
광주/(두)	-	1	2	1	-	-	-	-	-	2	6
경남/(두)	-	-	-	-	2	-	-	1	-	-	3
인천/(두)	-	-	2	-	-	-	-	-	-	-	2
대전/(두)	-	-	-	1	1	-	-	-	-	-	2

### 3. 비육마 생산과정 및 유통체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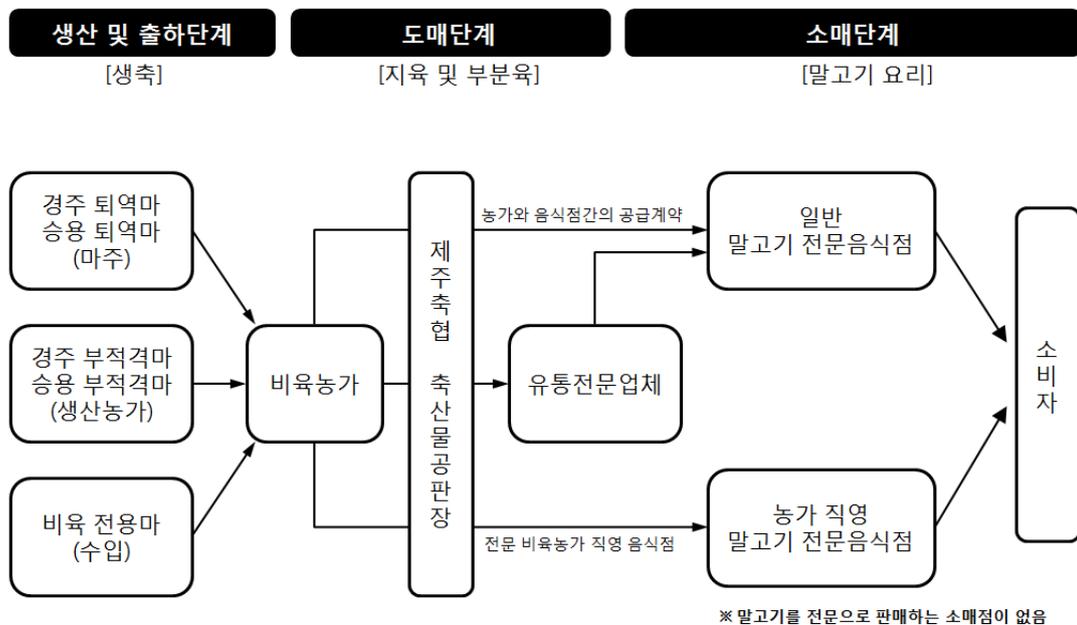
국내 비육마 생산과 유통은 주로 제주도에에서 이뤄지고 있다. 제주의 비육마 생산 농가는 40~50개소이며, 이중 10여개의 농가가 비육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이다. 제주도내 비육마로 사용되는 종은 비육 전용마가 아닌 제주마, 더러브렛, 제주산마(한라마)가 주를 이루며, 비육마 생산농가에서는 경주 퇴역마, 승용 퇴역마, 경주 부적격마, 승용 부적격마 등을 구입하여 단기간(3~4개월)에 비육시킨다. 비육기간 동안 농가에서는 말에게 주로 소 비육 사료를 급여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비육을 목적으로 하는 말의 사료가 없기 때문이다. 강민수 등(2014)에 따르면 말을 단기간에 비

17)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http://www.qia.go.kr/) 말 도축실적, 2007~2016.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육시키는 이유는 비육기간 초기(3~4개월)에는 증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비육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 증체량이 완만해지면서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육농가에서는 단기간 비육시켜 투자비용 줄인다. 4개월 이상 비육시키면 말고기의 품질이 좋아지지만 농가의 입장에서는 투자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육이 완료된 말은 도축장으로 옮겨진다. 국내에 말 전용 도축라인이 있는 도축장은 없기 때문에 소 도축라인을 이용하여 말의 도축이 실시된다. 도축된 말고기는 품질별, 부위별이 아닌 Kg 당 단가로 유통이 되며, 대부분 제주도내의 말고기 음식점을 통해 소비되고 있다.

<그림 1>은 제주도내 비육마 생산 및 말고기 유통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비육농가는 마주, 생산농가, 수입을 통해 말을 구입하고, 일정기간 말을 비육시킨 뒤 도축한다. 도축된 말고기는 유통전문 업체를 거쳐 말고기 음식점으로 판매되거나, 비육농가가 유통전문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말고기 음식점으로 판매되거나, 비육농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말고기 음식점으로 납품된다.

<그림 1> 제주도내 비육마 생산 및 말고기 유통체계 모식도<sup>18)</sup>



18) 노경상 등, 말고기 등급화 규정정립에 관한 연구, 2015.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제주도의 말고기 음식점은 2010년 38개에서 2014년 46개로 8개소(21.1%) 증가였으며, 2014년 농협은 최초의 비육마 브랜드인 웰미트를 출시하여 유통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sup>19)</sup>

#### 4. 말고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앞서 검토한 내용을 통해 말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말고기 시장도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육용마는 전체 말 두수의 3.3%에 불과하여 아직까지는 말고기 시장이 말산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육마의 생산과 말고기의 소비가 제주도에 한정되어 있으며, 비육 전용마의 부재, 비육 말 전용 사료의 부재, 말 전용 도축라인의 부재 등으로 인해 말고기의 품질 개선이 어려우며, Kg 당 단가책정 방식으로 인해 육용마 비육농가는 품질 개선보다 무게 늘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19) e경제뉴스 [www.e-conomy.co.kr/](http://www.e-conomy.co.kr/) 보도자료<농협, 국내 최초 말고기 전문 브랜드 '웰미트' 선보여> 2014.11.28.

### Ⅲ.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파악

#### 1.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검토

2011년 말산업 육성법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2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말산업 육성 계획인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서는 비전, 달성목표, 추진과제, 기관역할을 제시하였으며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종합계획의 비전은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FTA 시대 말산업을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달성목표는 <표 8>을 통해 나타내 보았다. 주요 달성목표는 사육두수, 사육농가, 승마장, 승마인구의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다. 달성여부는 기본방향을 모두 검토 한 뒤에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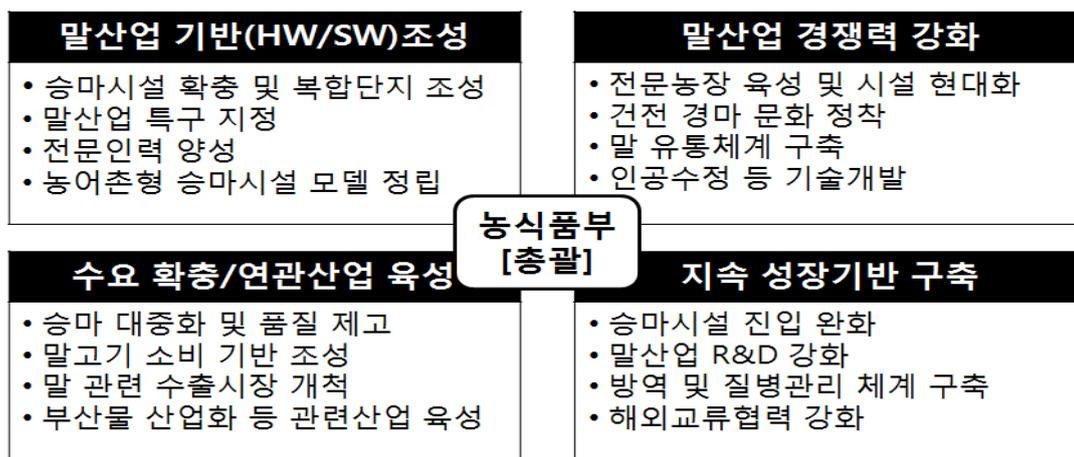
<표 8>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달성목표<sup>20)</sup>

달성목표 \ 연도	2011년	2016년
사육두수(전체)/(두)	30,000	50,000
사육두수(승용마)/(두)	6,000	10,000
사육농가/(호)	1,900	3,000
승마장수/(개소)	290	500
승마인구(정기)/(명)	25,000	50,000
승마인구(체험)/(명)	630,000	1,500,000
일자리 창출/(명)	20,000	30,000

20)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보도자료<농식품부,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 2017.7.16.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는 크게 말산업 기반의 조성, 말산업 경쟁력 강화, 수요 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 지속 성장기반 구축으로 나뉘지며 세부적인 내용은 <그림 2>로 나타내보았다.

<그림 2>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추진과제<sup>21)</sup>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역할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말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며, 마사회에서는 말산업 육성 전담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관련 단체에서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연구·교육 기관에서는 인력양성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제시하였다.

이번엔 종합계획의 말산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 중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말고기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유통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에서는 말고기의 생산·유통·소비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9>를 보면 3개의 분야를 나누어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 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생산부분에서는 아직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비육 농가에게 시설을 지원해주고, 비육마 표준시설 및 사양모델을 개발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전문 육용마 도입과 한국현 육용마 육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유통부분에서는 말 전용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미흡에 따른 말고기 등

21)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보도자료<농식품부,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 2017.7.16.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급관정 시범사업의 확대 및 말고기 생산이력제 도입 검토와 농협 유통망을 활용한 판매점 확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소비부분에서는 말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기피현상과 요리기술 미흡, 전문요리사 부재에 따라 식품 소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말고기 및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말산업 박람회, 말고기 요리 경연 대회 등을 통해 말고기를 홍보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표 9> 말고기 생산·유통·소비기반 조성 계획<sup>22)</sup>

분야	내용
사육/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비육마 전문생산 농장이 드물고, 사양표준 및 전문 사료도 없어 반추동물(한우) 사료를 급여, 대부분 퇴역마를 이용하며 비전문 사료를 급여하기 때문에 사료효율 저하</li> <li>○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육용마 전문농장(말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에 축사시설현대화 지원</li> <li>2. 전문농장에 대한 시범사양, 표준시설 및 사양모델 개발·보급</li> <li>3. 전문 육용마 도입·한국형 육용마 선정 연구 용역 추진</li> </ol> </li> </ul>
도축/가공/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전용도축장, 가공장, 전문판매장 등 미흡</li> <li>○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1년 제주도 말고기 등급관정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단계적 확대(육지) 방안 검토 - 말 전용 도축라인 구축 지원, HACCP 도입 추진</li> <li>2. 말 등록과 연계한 말고기 생산이력제 도입 검토</li> <li>3. 전문판매점 확대, 농협 유통망을 활용한 판매시스템 구축</li> </ol> </li> </ul>
소비/가공품/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말고기에 대한 소비자 기피, 특정 계층의 기호식, 요리기술 미흡, 전문요리사 부재</li> <li>○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품 소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말고기 및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기반 마련</li> <li>2. 말고기의 기능적 효능(오메가-3, 당뇨예방)등을 말산업 박람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li> <li>3. 식품 소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마육 및 가공식품 개발 연구 용역</li> <li>4. 소비자단체·한식문화재단 등과 연계한 말고기 요리 경연대회, 말고기 요리 책자 발간 보급, 홈페이지 홍보 등</li> </ol> </li> </ul>

이번엔 2016년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1차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여부를 <표 10>을 통해 나타내보았다. 2011년과 비교해 봤을 때, 승용마의 사육두수, 사육농가 수, 승마장 수, 정기 승마인구수, 체험 승마인구수가 증가하긴 하였지만 달성목표를 달성한 부분은 승용마의 사육두수가 유일하다. 이를 수치로 표현해보면 2011년 승용마의 사육두수는 6,000두였으며 달성목표로 10,000두를 설정하였고, 실태조사 결과 10,766두로 10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의 목표 달성률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승마장 수는 목표의 95.8%, 정기 승마인구수는 목표의 94.9%, 사육농가 수는 목표의 65.3%, 체험 승마인구수는 목표의 59.4%, 일자리 창출은 목표의 55.5%, 말 사육두수는 목표의 54.2%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달성여부<sup>23)</sup>

달성목표	연도	2011년	2016년		달성 여부
			달성목표	실태조사 결과	
사육두수(전체)/(두)		30,000	50,000	27,116	부
사육두수(승용마)/(두)		6,000	10,000	10,766	여
사육농가/(호)		1,900	3,000	1,960	부
승마장수/(개소)		290	500	479	부
승마인구(정기)/(명)		25,000	50,000	47,471	부
승마인구(체험)/(명)		630,000	1,500,000	890,951	부
일자리 창출/(명)		20,000	30,000	16,662	부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 다소 아쉽게 마무리 된 가운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말산업 육성 계획이 포함된 제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은 2017년 12월 현재,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게 되어 늦어진다는 입장을 내놓았다.<sup>24)</sup>

22)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보도자료<농식품부,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 2017.7.16.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23)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보도자료<농식품부,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 2017.7.16. 및 호스피아 [www.horsepia.com/](http://www.horsepia.com/) 말산업 통계, 2016.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2. 말산업 특구의 말산업 육성 정책 검토

2011년 말산업 육성법의 시행과 2012년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특구지정 계획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었고, 2015년 6월 제2호 말산업 특구로 경상북도 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동시에 제3호 말산업 특구로 용인·화성·이천 지역이 지정되었다. 이렇게 현재까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기도 총 3개소이다. 각 특구에서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1)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 육성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호 말산업 특구이며, 지정 당시 국내 말 사육두수의 67%(2만두 수준) 사육, 50여개의 승마시설 보유, 국내 초지의 45%(17천 ha) 보유 등 말의 생산·조련·이용 등에 필요한 자연 여건을 갖춘 곳으로 이러한 여건을 활용한 말산업 육성·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말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말산업 특구 지정신청서에서 말산업 육성 정책방향을 경마산업, 승마산업, 마육산업, 연관산업, 질병방역 5가지 분야로 제시하였다. 경마산업은 엘리트 국산 경주마 공급, 선진 경마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승마산업은 브랜드 승용마 생산, 승마 수요기반 확충을 제시하였다. 마육산업은 말고기 생산·유통 선진화, 기능성 가공제품 개발을 제시하였으며, 연관산업은 말문화 콘텐츠 발굴 육성, 글로벌 말산업 기반 조성을 제시하였다. 질병방역은 말 질병 모니터링 강화, 전문병원 건립과 인력 육성을 제시하였다. 5가지 분야 중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마육산업 분야의 육성 계획을 <표 11>에 나타내보았다. 주요내용은 전문 말 비육농가 육성, 말 도축 및 유통시스템 표준화 추진, 말고기 품질 차등가격제 실시, 말고기 전문 판매점 개설, 말 관련 제품 수출 지원 등을 통해 말고기 생산·유통 선진화를 도모하고, 가공제품 생산·설비 지원, 기능성 가공제품 개발 R&D 지원을 통해 기능성 가공

24) 한국농정신문 [www.ikpnews.net/](http://www.ikpnews.net/) <2차 말산업 5개년 종합계획, 언제 나오나?> 2017.2.12.

제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표 11>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옥산업 분야 육성 계획<sup>25)</sup>

분야	육성 계획
마옥산업	<p><b>말고기 생산·유통 선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말 비육농가 육성 : 말고기 공급 비육농가를 육성하고 농협, 가공공장 등과 연계 지원하여 고급 말고기 수급능력 확보</li> <li>- 위생적인 도축 및 부분육 유통 : 말 도축 및 유통시스템 표준화 추진</li> <li>- 말고기 품질 차등가격제 실시 : 말고기 유통이력체계 및 말고기 등급 판정제도 도입, 부위별 정형기준 적용 분할 및 등급별·부위별 차등가격 산정·유통</li> <li>- 말고기 전문 판매점 개설 : 제주 혹은 내륙지역에 말고기 전문 판매점 개설, 유통매장 입점, 말고기 판매점 기반설비 지원</li> <li>- 말 관련제품(말고기 포함) 수출 지원 : 말고기 생산·유통시스템을 일본 등의 수출조건에 맞게 구축하고 현지 판촉 강화</li> </ul> <p><b>기능성 가공제품 개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제품 생산설비 지원 : 말고기 육포, 햄 등 2차 가공설비 지원</li> <li>- 기능성 가공제품 개발 R&amp;D 지원 : 말고기, 말뼈 가공 신상품(육포, 햄, 소세지 등) 제조공정 개발, 영양성분 분석 및 소비자 기호도 조사, 말 부산물(마유 등) 활용 제품 개발</li> </ul>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년도별 축산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마옥산업 관련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마옥산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업은 총 10개이며, 투자한 사업비는 총 2,63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년도는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2014년(1,449백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2013년(539백만원), 2015년(369백만원), 2016년(210백만원), 2012년(67백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은 비육마 종마 도입(1,000백만원) 사업이며, 가장 적은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은 말고기 시식회(10백만원) 사업이다. 5년간 매해 꾸준히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은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137백만원) 사업으로 나타났다.

25)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특구 지정신청서, 2013.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과제, 2014.

<표 12>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옥산업 추진상황(2012 ~ 2016년)<sup>26)</sup>

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	47백만원 3개소	20백만원 1개소	27백만원 1개소	20백만원 1개소	23백만원 1개소
식용마 공동비육시설 설치	-	334백만원 2개소	-	-	-
식용마 비육시설 설치	-	-	167백만원 1개소	207백만원 4개소	-
말 비육 전문농가 시설지원	-	50백만원 1개소	50백만원 1개소	47백만원 1개소	50백만원 1개소
고품질 마옥생산시설 시범	-	75백만원 1개소	60백만원 1개소	-	117백만원 2개소
비육마 종마 도입	-	-	1,000백만원 62두	-	-
말도체 등급판정 장려금 지원	20백만원 200두	50백만원 500두	45백만원 300두	-	-
말고기 품질고급화 지원	-	-	100백만원 500두	95백만원 692두	-
말고기 시식회	-	10백만원 1식	-	-	-
말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	-	-	-	20백만원 1식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축산사업 계획은 총 189개 사업에 89,292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중 마필산업육성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3,543백만원으로 양돈산업육성 17,549백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16,492백만원에 이어 3번째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15.2%에 해당하며 마필산업육성안의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되는 사업비는 259백만원으로 이는 전체 사업비의 0.3%, 마필산업육성 사업비의 2%에 해당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사업추진계획, 2013~2017.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이어서 경상북도의 말산업 특구인 5개 시·군(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의 말산업 육성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미시는 전국 학생승마 선수권 대회 및 구미 시장배 전국 종합 마술 대회 개최, 초·중·고 승마체험 지원, 사회 공익 승마체험(생활승마·재활승마) 지원,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 지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등의 사업에 710백만원을 투자하여 승마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영천시에서는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 학생 승마체험, 영천시 스타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스타영천 승마아카데미 운영, 말 사육농가 승마아카데미 운영, 영천대마기 국제 유소년승마 대회 개최, 영천대마기 전국 종합마술 대회 개최, 운주산 승마조련센터 운영,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방목장 조성, 전문승용마 조련 고도화 사업,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 경주마 전문 휴양센터 건립 지원, 영천 복합 말산업(마구산업)타운 조성, VR(가상현실) 승마체험존 조성, 운주산 승마조련센터 힐링 마차운행, 말산업 행정 전문 인력 해외연수 파견, 말 문화 공연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에 375,633백만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제공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지속적인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상주시는 상주국제승마장을 중심으로 각종 전국 승마대회 개최, 전국 공무원 승마아카데미 운영, 승마 강습(체험) 등을 통해 2015년 방문객 131,425명, 수입 255백만원에서 2017년 방문객 182,000명, 수입 66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주국제승마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2018년에는 승마장 수입이 800백만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거점 말 번식센터 조성, 어린이 승마 활성화를 위한 포니랜드 조성, 승마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H2(horse-riding & healing) 가족나들이 프로젝트 등의 사업에 3,501백만원을 투자하여 승용마 생산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승마장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승마의 대중화를 유도하고 있다.

군위군은 삼국유사 가온누리 승마체험장 설치, 경주마 전문 휴양시설, 마사 체험 박물관, 산악승마 힐링 로드 조성, 조사료 생산 등의 사업에 17,500백만원을 투자하여 말산업 특구 시설의 집단화를 통해 승마에서 관광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말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에서는 승용마 번식용 말 보급, 말 사육시설 개보수 지원, 벼 육묘공장 활용 새싹사료 생산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의 사업에 2,450백만원을 투자하여 말 사육 기반 조성을 마련하고, 말 테마마을 조성, 말 산업 연관 제조업 시설 지원, 말 상시 공연장 조성, 외승길 조성, 학생 승마체험 활동 지원 등의 사업에 3,325백만원을 투자하여 말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국립 재활승마센터 유치, 말산업 R&D 의료센터 설치, 재활승마 치료 교육 센터 운영 등의 사업에 8,300백만원을 투자하여 다기능복합 치유건강타운 조성 및 최첨단 말 임상 연구·진료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 3) 경기도(용인·화성·이천)의 말산업 육성 정책

경상북도와 동시에 2015년 6월 제3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화성·이천 지역은 체험승마 등 승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울·인천 등 대도시와 인접하여 말산업 육성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의 말산업 육성 계획은 말산업 특구로 공동 지정된 용인·화성·이천 지역을 호스랜드로 명명하고, 이천시는 생산 조련 유통을, 화성시는 관광레저의 소비형으로, 용인시는 엘리트, 재활승마로 역할을 분담하여 말 산업 인프라 구축, 승마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해외교류를 추진하여 2019년까지 마필 6,000두, 승마장 100개소에 승마체험인구 5만명의 규모로 성장하여 1,200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이다. <그림 4> 참고. 또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600억원을 투자하여 용인시 처인구, 화성시 마도면, 이천시 설상면에 외승로 조성하고, 말 구입비, 축산농가 말 사육 전환, 말 운반 트레일러, 승마장 환경개선, 승마교실 운영, 말 테마 창조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4> 경기 호스랜드의 말산업 육성 계획 조형도<sup>28)</sup>



이어서 경기도의 말산업 특구인 3개 시(용인·화성·이천)의 말산업 육성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용인시에서는 산악승마길 조성, 축산농가 말 사육 전환 지원, 승용마 구입 지원, 말 6차 산업화 체험농장 조성, 재활승마 전문 승마장 육성 지원, 말 전용 운송 차량 구입 지원, 말 조련 장비 지원, 외승코스 조성, 축제와 연계한 승마 체험 행사,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외승 프로그램 참여자 기승료 지원 등의 사업에 5,036백만원을 투자하여 말 생산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관광 승마를 활성화하여 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화성시에서는 말 둘레길 조성, 공공승마장 조성, 말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발안 바이오고등학교) 지원, 승마장 육성 지원, 승용마 구입 지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농어촌 관광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에 7,663백만원을 투자하여 말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8) e-이천시민신문 [www.iccitizen.kr/](http://www.iccitizen.kr/) 보도자료<이천시, 대한민국 제3호 말 산업 특구로 지정> 2015.6.22.

마지막으로 이천시에서는 전문 승용마 씨암말 보급, 축산농가 말 사육 전환 지원을 통해 말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학생 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 승마대회 개최, 승마장 보험료 지원, 승마시설 개보수 지원, 농촌 관광승마, 말 테마 체험마을 조성을 통해 승마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주마 구입, 씨수말 지원, 경주용 조련시설 지원, 한국마사회 마주활동 추진을 통해 경주마를 육성하는데 7,888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 3.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과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제주, 경북, 경기의 말산업 육성 정책을 검토한 결과,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서의 말고기 생산·유통·소비기반 조성 계획에 따라 현재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북과 경기는 제주에 비해 아직 말산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일하게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12년부터 추진된 말 도체 등급판정 시범사업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2015년에 중단 되었으며, 이로써 2014년 국내 말고기 품질 향상을 위해 10억을 투자하여 도입한 비육마 종마에 대한 효과도 확인 할 수 없게 되었다.

## IV. 문제점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앞서 말고기 시장의 현황과 말고기 시장 활성화 정책의 현황 파악을 통해 각각의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번에는 그 문제점들을 정리해보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1. 말산업 특구(제주·경북·경기) 간의 말고기 유통망 구축

말고기 시장의 문제점 중 하나는 생산과 소비가 제주라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생산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유통체계를 확대하는 것은 비교적 단 시간에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전성원 등(2015)에 따르면 말고기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액이 높아지므로 이를 이용하여 우선 상대적으로 말에 관심이 높은 말산업 특구를 중심으로 제주·경북·경기 간의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말고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점차 확대해나가면 육지부에서도 말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말고기의 연간 섭취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말고기 유통망이 자리를 잡게 되어 말고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 방안을 세부적으로 설명 해보자면, 제주에서는 비육마 사육농가 중 육지부로 유통을 원하는 농가를 모집하고 선정된 농가의 비육마는 등급관정을 거쳐 1등급 이상의 말고기만을 유통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유통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경북과 경기에서는 기존의 말고기 음식점 혹은 신규 말고기 음식점 중 제주산 말고기를 납품받기 원하는 음식점을 모집하고 선정된 음식점을 중심으로 말고기 시식회를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여 선정된 음식점과 말고기 홍보를 통해 고품질 말고기 생산과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의 축산사업추진계획을 참고하여 <표 13>과 같이 제주의 말고기 유통망 확대를 위한 유통비 지원 사업

계획서(안)을 구성해 보았다.

<표 13> 말고기 유통망 확대를 위한 유통비 지원 사업계획서(안)

## 사업계획서(안) - 제주

### 말고기 유통망 확대를 위한 유통비 지원

#### 가. 사업목적

- 말산업 특구간의 유통망 구축을 통한 말고기 시장 활성화 도모

#### 나. 추진방침

- 유통 전 등급판정 과정을 거쳐 1등급 이상의 말고기만을 육지부로 유통시켜 제주산 말고기의 신뢰도 구축 및 말고기 품질 고급화 도모

#### 다.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마.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 1 ~ 12월
- 지원대상 : 제주도내 비육마 생산농가
- 사업내용 : 제주에서 생산된 1등급 이상의 말고기를 육지부의 말산업 특구로 유통하는 조건으로 유통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 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완료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 2. 말고기 품질 개선을 위한 등급·부위별 단가 책정

말고기 시장의 또 다른 문제점은 말고기의 단가가 등급·부위별이 아닌 Kg 당 단가로 책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책정 방식으로 인해 비육마 생산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체중이 늘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두고 사육하기 때문에 말고기의 품질 개선과는 자연히 거리가 멀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말고기의 품질 향상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육 전용마가 아닌 제주마·제주산마(한라마)·더러브렛을 주로 비육하기 때문에 말고기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육 전용마를 도입하기도 하였지만, 비육 전용마의 사양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가 제시하고 싶은 방안은 말고기의 등급별·부위별로 단가를 책정하는 것이다. 등급별로 단가를 책정하게 될 경우, 비육마 생산농가에서는 더 이상 말의 체중증가에 몰두하지 않고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말고기의 품질이 개선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는 높은 등급의 비육마 생산을 위한 사육체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해야한다. 또한 등급·부위별로 단가를 책정하게 될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등급 혹은 필요한 부위의 말고기를 선택 할 수 있으니 더 효율적인 소비가 가능해진다.

등급·부위별로 단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 도체 등급판정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말 도체 등급판정제도는 2012년 제주도를 시범으로 시행되었으며 강민수 등(2014) , 노경상 등(2015)은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말 도체 등급판정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지만 사업은 2015년 말로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말고기 품질 개선을 위해서 말 도체 등급판정제도는 다시 시행되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등급판정제도 시행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말고기의 등급·부위별 단가 책정 방식이 동시에 도입되어야 한다.

## V. 결론

말산업 육성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구를 지정하였다. 그 결과 말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는 말산업의 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와 동시에 말고기 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말산업의 규모 중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경마와 승마 분야로 말고기 분야는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경마, 승마, 말고기 산업의 균형 잡힌 육성이 필요하다.

말고기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말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말고기의 품질이 개선되어야 한다. 말고기의 품질이 개선되어 다른 축산물과 영양이 아닌 맛으로 비교했을 때 우위에 설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긴다면 말고기에 대한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품질이 개선된 맛있고 영양이 많은 말고기를 제주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말고기의 전국적인 유통 체계가 구축되어 어디서나 쉽게 말고기를 구입하여 먹을 수 있다면, 어쩌다 제주도에 왔을 때 한 번씩 먹어보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원할 때 어디서든지 손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음식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와 말 도축 실적, 비육마 생산과정 및 유통체계 검토를 통해 국내 말고기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아직까지 말고기 시장이 말산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말고기의 생산과 소비가 제주도에 한정되어 있으며, 말 비육에 대한 체계 구축이 미비하여 말고기의 품질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말산업 육성법과 종합계획 및 말산업 특구의 말고기 시장 활성화 정책 검토를 통해 국내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유일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에서도 말 도체 등급판정 시범사업의 중단, 비육 전용마 도입 효과의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찾은 문제점을 통한 개선방안으로 말산업 특구(제주·경북·경기) 간의 말고기 유통망 구축 방안과 말고기 품질 개선을 위한 등급·부위별 단가 책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말고기의 품질이 개선되고 전국적으로 유통망이 구축된다면 말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한계는 제안한 개선방안이 시도 되었을 경우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될 말 비육 농가와 말 전문 음식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고기를 소비하게 될 소비자 등에게 인식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이다.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이 한계점이 보장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김소현(2016). 구제역이 돼지고기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영규(2012). 구제역 발생이 육류 시장의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이유진(2011). 조류독감의 발생과 학교급식의 영향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김문영(2011). 기존 축산업의 대체 산업으로써 말(馬)산업 육성의 타당성 여부 고찰. 동서언론. 39-71.

민윤숙(2009). 제주도 말고기 식용 전통과 말고기 식용 부정(不淨) 관념 분석. 민속학연구. 169-196.

정진형, 선창완, 황도연, 권기문, 이재청, 김효선, 김용준, 이상근, 류연철(2013). 축산물 및 가공 : 말고기의 육질 등급에 따른 부위별 일반성분, 이화학적 특성 및 지방산 성분 비교. 한국축산학회지. 211-217.

박행철(2015). 말근육 부위별 근섬유 특성 및 등급판정에 따른 육질분석.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김도희, 김경원, 김영훈, 김주아, 김준, 문광덕(2015). 백색육(오리고기, 닭고기)과 말고기의 식품학적 성분 비교.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644-651.

강민수, 이왕식, 김유민, 고민정, 오현재, 류연철, 고경보, 강동근, 강민경, 양익동, 김영화, 박행철, 황도연, 정진형, 선창완, 김효선, 이재청, 권기문, 강인수, 김승곤, 김용준, 이세형, 장기환(2014). 신동력 말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말고기 품질향상 및 인증시스템 개발. 제주대학교 최종보고서.

노경상, 이상철, 이종언, 천현식, 전상준(2015). 말고기 등급화 규정정립에 관한 연구.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최종보고서.

전성원, 최승철, 신용광(2015). 말고기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지불의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4489-4497.

강승진, 정승훈(2014). 제주도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Vol. 188.

제주특별자치도청(2013). 말산업특구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청(2013~2017). 축산사업추진계획.

경상북도청(2015). 호스월드 조형도.

법제처(2017). 말산업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2.7.16.) 농식품부,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1.2). 농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를 말산업특구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8.31.) 농식품부, 특구 지정요건 완화로 말산업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5.6.21.) 농림축산식품부, 제2호·제3호 말산업특구 지정!

호스피아(2014~2016). 말산업 통계.

농협중앙회(2014). 국내 말고기 소비량.

농림축산검역본부(2017). 소해면상뇌증,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림축산검역본부(2007~2016). 도축실적.

한국농정신문 보도자료(2017.2.12.). 제2차 말산업 5개년 종합계획 언제 나오나?

e-이천시민신문 보도자료(2015.6.22.). 이천시, 대한민국 제3호 말 산업 특구로 지정

e경제뉴스 보도자료(2014.11.28.) 농협, 국내 최초 말고기 전문 브랜드 '웰미트' 선보여

## ABSTRACT

The present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following the review the horse industry promotion method, with the aim to find out the best possible solution that can vitalize the horse meat market. The horse racing industry had been in the center of the horse industry until 2011, however later the law for horse industry rearing was enacted as it consider a composite industry with high growth potential and added value. First five-year maste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horse industry was established in 2012. In 2014, Jeju-do 2014 and Gyeongsangbuk-do and Gyeonggi-do in 2015, were designated as exclusive horse industry zones. Indeed, the horse industry has been seeking for the popularization of horse-riding on top of the horse racing industry and expanding various services.

Recently, the causes zoonotic diseases various infectious diseases in domestic animal. We eat leads consumers to look for a substitute food that can be eaten safely due to the anxiety over existing livestock products. The horse meat that is relatively safe from those infectious diseases is rising. The interest of horse meat, although there still exists a stigma about horse meat.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initiated with the concern about what kind of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based on the current law for horse industry rearing, which can be invigorated the horse meat market at the exclusive horse industry zone.

Literature research was selected as a research method, and main sources included preceding researches, horse industry promotion methods, the first five-year master plan for horse industry rearing, the horse industry promotion policy in each exclusive zone, and researches on the actual conditions.

The result, revealed that horse meat market does not account for a large portion in the horse industry. The horse meat is produced and consumed only in Jeju-do, under a poor system set up. The research on the policies implemented for the vitalization of the horse meat market shows that only Jeju-do is implementing such policy and even in Jeju-do, the demonstration project for horse meat carcass grading has been suspended. There was no visible outcome in the attempt to introduce a system to raise horses exclusively for an eating purpose. Finally,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as a measure to improve the following issues: the establishment of a shared horse meat distribution system among exclusive horse industry zones (Jeju, Gyeongbuk and Gyeonggi); and a unit cost setting by grade and meat cut for the improvement of meat quality.